

상하수도 요금감면혜택 제공 “농촌지역 인구유입 촉진될 것”

익산시, 누수감면·취약계층·다자녀·착한가격업소 등

익산시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제공에 나선다.

시는 겨울철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감면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착한가격업소 등에 다양한 감면 혜택을 시행 중이다.

우선 누수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을 지참하여 상수도과에 신청해야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감면 대상 수용가는 상수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상수도과로 팩스 신청(FAX 859-5063) 하면 된다.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사회약자는 최대 7000원, 다자녀는 최대 1만5000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 시민 대상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1%(최대5,000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한명의 시민이라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4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등 지원 확대

군산시는 21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4등급 노후경유차(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료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 지원대수는 2,300여대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 지원’ 총 3종 사업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https://www.mcar.or.kr>))내 제공해조치 신청) 또는 등기우편(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격자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은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다. 또 지난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료용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미세먼지(PM-10) 등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 식으로 배기량

5,800~1만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덤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해당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군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1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발송,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행정전광판 포출, 시청 엘리베이터 모니터 포출 시뮬레이션 광고 등 4·5등급차량 소유자가 착오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50일만에 1억 돌파

익산시가 지난 2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50일 만에 모금액 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약 50여개의 고향사랑기부제 단체를 준비, 기부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단체 중 인기 답례품으로는 고구마(43.9%), 쌀(19.5%) 등으로 특산품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억원 돌파를 기념하며 이번 주부터 오는 3

월 7일까지 감사 이벤트를 개최한다.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는 간단한 기부 인증 후 답례품 민중도 조사에 참여하면 선착순으로 마물이 인형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축하 댓글과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마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전국에서 많은 이들의 손길이 이곳 익산으로 모이고 있다며, 보내 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보다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28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임주가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당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8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열린시정 열린군산’ 만족도 설문 실시

군산시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7일간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 구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정소식지에 대한 정기 구독자 및 시민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운영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폼(<https://naver.me/5k0p5Mtd>)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응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초 공보담당관은 “시정소식지의

변화를 원하는 흐름에 맞춰 소식지 개편을 추진중”이라며,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전 연령대가 공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령별 선호매체를 파악해 활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정소식지와 더불어 군산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공무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부터 숨겨진 지역의 명소까지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구독자 및 시민과 소통 중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초등 학부모 심리전문가 특강 마련

군산시가 내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학기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강을 준비했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초촌동 금강도서관 3층 금강누리다목적실에서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우리아이 불안감 잠재우기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심리치료 전문가가 심학기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자를 통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선배 학부모들이 멘토로 참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소그룹 상담

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아이를 동반할 경우 불참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초등학교는 보육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첫 단계로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스스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시 교육지원과에 접수(454-2501)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튀르키예·시리아 자진 피해 특별모금

익산시가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모금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익산시민민원콜센터(1577-0072)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모금 신청을 받는다.

성금 기부에 대해 관심과 문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익산시 민원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기부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2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 자신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탁신청서를 작성 후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정현을 시장은 “큰 재난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성금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동된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방문의 해 맞아 관광객 자전거 무료 대여소 재개

익산시는 겨울철 추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단했던 무료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 맞아 금강과 민경강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전거 무료 대여로 봄이 오는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운영하는 무료 자전거 대여소는 금강(중포관광지공매나루)과 민경강(사수정 원터) 자전거길 인근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50대의 자전거를 비치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만끽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많이 찾을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 대여소를 오는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한다. 대여소에 1인용 및 2인용 자전거와 안전헬멧 등이 비치되어 있어 시민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2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